

종목 정보

Not Rated

목표주가	n/a
현재주가	55,200원
시가총액	3,849.8억원
주식수 (유통주식 비중)	6,974,311주 (63.8%)
52주 최저/최고	30,800원/63,700원
60일-평균거래대금	14.4억원

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슈프리마 (%)	-1.6	13.2	60.0
Kosdaq 지수 대비 (%pts)	-6.6	47.1	65.3

컨센서스

커버 증권사 수	1
목표주가	74,000
추천 점수	4.0

※ 추천점수: 4 이상 → BUY, 3 → HOLD, 2 이하 → SELL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슈프리마 (236200)

인프라 투자 확대, 늘어나는 하이엔드 보안 수요

- 하이엔드 보안 수요 증대로 P와 Q가 동시 성장하는 구조적 성장 국면 진입
- 주주 환원 확대 국면. 12MF PER 8배 수준으로 글로벌 피어 대비 부담 제한적
- '27년 초 AI 카메라 글로벌 론칭 예정. 통합 물리보안으로 사업 영역 확대 가능

WHAT'S THE STORY?

기업 개요: 슈프리마는 바이오(지문·안면)인식 기반 출입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국내 출입보안 공공조달 시장 점유율 1위(51%)를 기록하고 있다. 상반기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은 약 85%에 달하는데, AI 하이엔드 제품군 확장, 중국 보안장비 규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수혜로 서구권·아시아·중동 등에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고단가 AI 제품 비중 확대: AI 안면인식 제품은 기존 RF 방식 대비 약 4배, 지문인식 대비 약 2배 높은 ASP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건설되는 AI 인프라, 중동 스마트시티 등에서는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데, 이에 동사의 AI Face 등 고단가 제품 판매 비중이 50%까지 확대되면서 P와 Q가 동시 성장하는 구조적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

독보적 재무 구조, 주주 환원 본격화: 동사는 높은 수익성(1H26 OPM 21.8%)과 무차입 재무 구조(부채 비율 9.5%)를 바탕으로 안정적 경영 기조를 지속 중이다. 과거에는 제한적 주주 환원과 낮은 자본 효율성으로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이 존재했으나, '25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며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을 이행 중이다. 컨센서스(Bloomberg) 기준 12MF P/E는 8.0배로 글로벌 피어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이다.

토탈 물리보안 기업으로 전환 목표: 기존 출입통제 단말기 중심 사업에서 AI 카메라(VIONyx)와 영상 관제(VMS)를 결합한 통합 물리보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신제품 VIONyx는 '27년 초 글로벌 론칭을 목표로 현재 한국, 일본에서 실증 및 레퍼런스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출입보안 솔루션에 AI 카메라와 영상관제 시스템이 추가될 경우 프로젝트당 매출 규모는 훨씬 확대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SUMMARY FINANCIAL DATA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십억원)	89	95	108	137
영업이익 (십억원)	18	17	23	33
순이익 (십억원)	18	23	32	32
EPS (adj) (원)	2,484	3,191	4,516	4,474
EPS (adj) growth (%)	-21.1	28.5	41.5	-0.9
EBITDA margin (%)	23.5	21.3	24.9	27.0
ROE (%)	10.3	11.9	14.7	12.8
P/E (adj) (배)	8.7	6.5	5.4	8.7
P/B (배)	0.8	0.7	0.7	1.0
EV/EBITDA (배)	4.4	3.9	4.1	5.6
Dividend yield (%)	0.0	0.0	0.0	0.0

자료: 슈프리마, 삼성증권

기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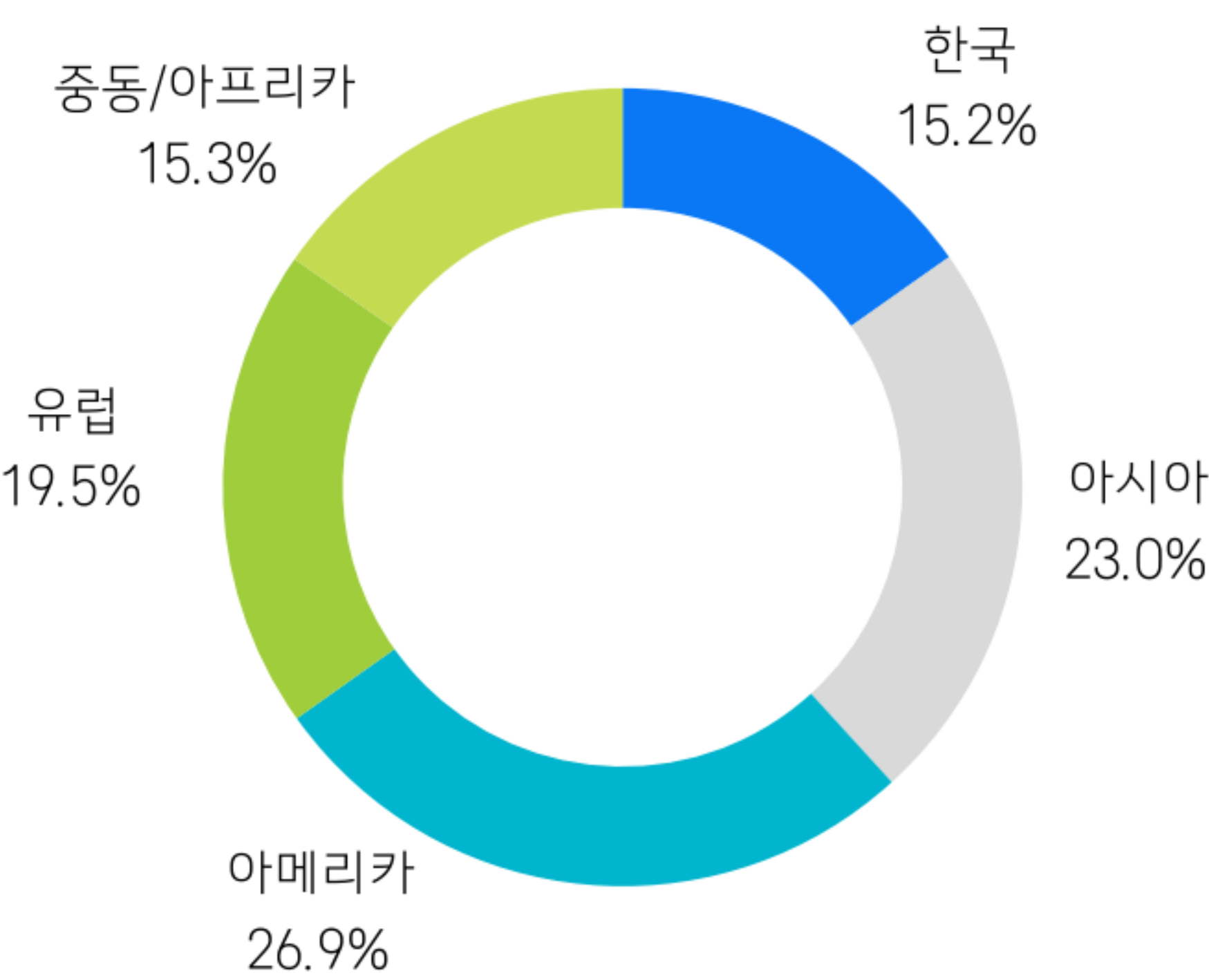
슈프리마는 2000년 5월 설립된 독자적 알고리즘 기반의 바이오 인식 보안 전문 기업이다. 2015년 12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존속법인인 지주회사 '슈프리마HQ'와 바이오 인식 사업부를 인적 분할한 '슈프리마'로 나뉜다.

바이오 인식 보안이란 개인의 생체 정보를 추출하여 정보화하는 기술로, 지문, 얼굴 등의 신체적 특징을 이용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기술은 기존의 신분증·카드·패스워드 등과 달리 탈취 및 복제가 불가능해 보안성 측면에서 훨씬 뛰어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해킹·테러위험의 증가로 공공부문 주도로 시장이 성장하였는데, 현재 동사는 국내 출입보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1위(시장 점유율 51%)를 기록하고 있다. 이후 민간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기술 도입 및 시장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세계 지문인식 경연대회(FVC),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인증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독자적 알고리즘의 정밀성을 세계 수준으로 인정받았고, 2010년대에는 단순 하드웨어 판매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안 시스템 통합 플랫폼인 바이오스타(BioStar), 모바일 지문인식 솔루션인 바이오사인(BioSign) 등을 출시하며 제품군 및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NPU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AI 출입통제 솔루션, AI 통합 보안 플랫폼, AI 카메라(CCTV) 등 AI 솔루션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AI 통합보안 솔루션 공급사로 도약 중이다.

글로벌 1위 수준의 바이오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 초기부터 해외 진출에 집중해왔으며, 그 결과 1H26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 연결 매출액의 84.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국내, 일본, 아시아, 미국, 유럽,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대륙별로 총 7개의 해외 법인을 두고, 446개 파트너들과 현지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1H26 기준 지역별 매출 비중은 아메리카가 26.9%로 가장 높으며, 아시아가 23.0%, 유럽이 19.5%, 중동/아프리카가 15.3% 수준이며, 국내가 15.2%로 가장 낮은 편이다.

지역별 매출 비중 (1H26)



자료: 슈프리마, 삼성증권

1H26 자회사별 매출액 및 순이익

자회사	매출액 (백만원)	순이익 (백만원)
UK	4,445.2	-663.2
Europe	7,771.4	93.7
Middle East	9,884.1	1,334.9
Japan	4,305.9	789.1
America	7,344.6	1,426.5
Latam	3,961.6	57.0
Biometrics	502.7	87.4

자료: 슈프리마,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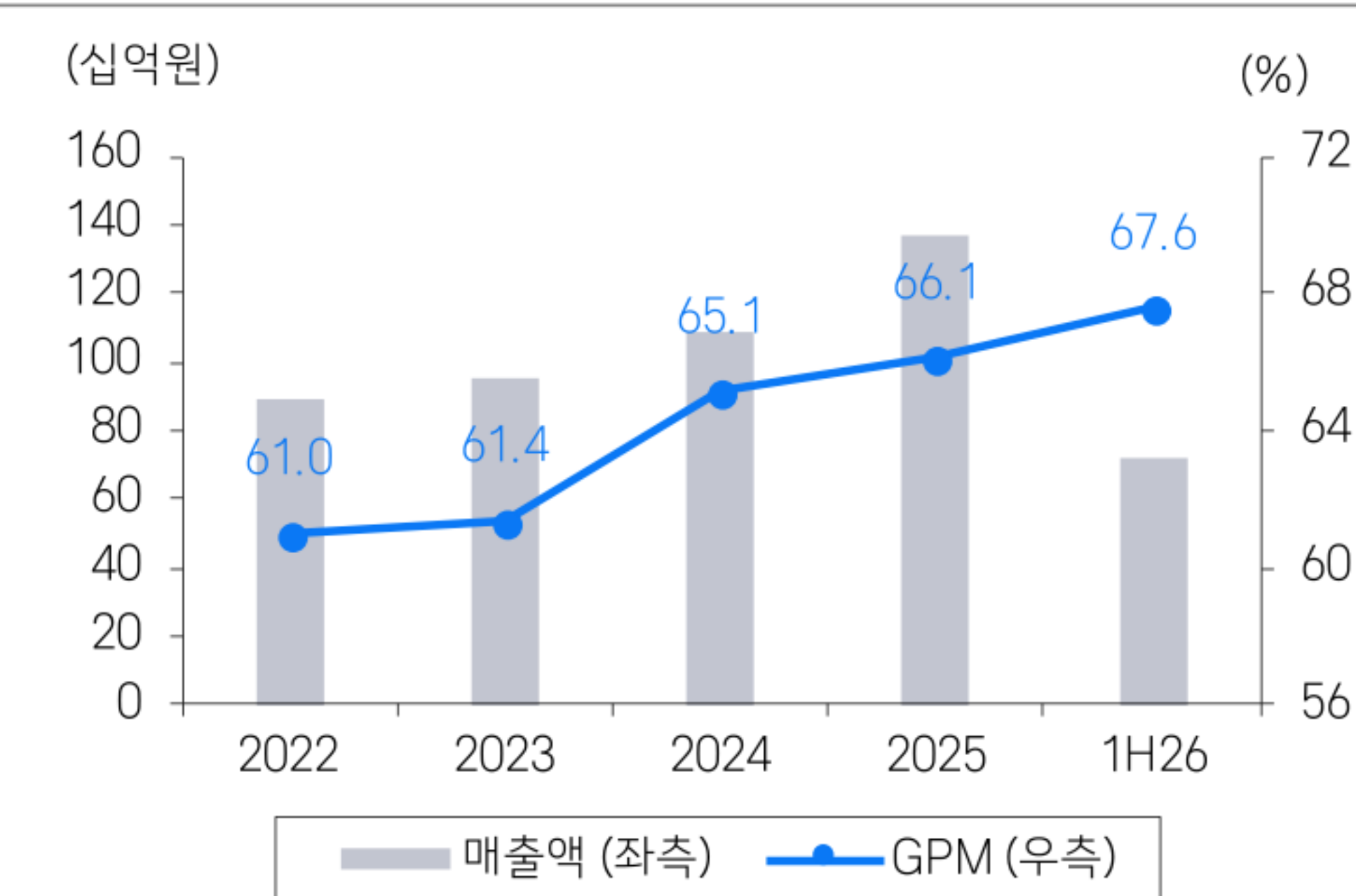
실적 추이

실적 추이

(십억원)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2023	2024	2025
매출액	20.5	28.1	25.1	34.5	28.8	32.5	30.4	45.6	31.1	40.3	94.6	108.2	137.3
국내	3.5	4.8	3.2	9.6	4.0	6.5	4.7	11.4	5.0	5.6	19.5	20.9	26.6
통합보안시스템	1.7	2.4	1.6	4.1	1.7	3.0	2.2	5.3	2.4	2.6	8.9	9.9	12.1
바이오인식솔루션	0.2	0.2	0.2	0.1	0.2	0.3	0.1	0.1	0.1	0.1	0.4	0.6	0.8
용역, 기타	1.6	2.1	1.4	5.4	2.1	3.2	2.4	6.0	2.5	2.9	10.3	10.5	13.6
해외	17.0	23.4	21.9	25.0	24.8	26.1	25.7	34.2	26.1	34.7	75.1	87.3	110.7
통합보안시스템	14.7	20.2	18.7	21.3	20.5	22.0	22.4	30.7	22.6	30.3	64.0	74.9	95.6
바이오인식솔루션	1.6	3.7	2.7	3.8	3.9	3.7	3.1	3.0	3.3	4.1	10.5	11.8	13.7
용역, 기타	0.7	-0.4	0.5	-0.1	0.4	0.4	0.1	0.5	0.3	0.3	0.7	0.6	1.5
매출총이익	12.7	18.9	17.1	21.9	19.6	21.8	20.1	29.3	21.0	27.3	58.1	70.5	90.8
GPM (%)	62.0	67.0	68.0	63.3	68.1	67.0	66.2	64.2	67.3	67.7	61.4	65.1	66.1
영업이익	2.2	6.7	5.7	8.6	5.7	7.6	6.5	13.0	5.4	10.2	16.7	23.3	32.7
OPM (%)	10.9	23.9	22.8	24.9	19.8	23.3	21.5	28.4	17.3	25.2	17.6	21.5	23.8
지배주주순이익	6.4	8.9	4.1	13.2	8.1	0.7	10.6	12.9	10.0	18.9	23.0	32.5	32.4
YoY (%)													
매출액	2.0	20.7	19.3	14.3	40.8	15.6	20.9	32.2	8.1	24.0	5.9	14.4	26.9
국내	-24.7	4.4	20.1	23.7	16.6	35.9	47.1	19.2	25.0	-13.2	0.2	7.3	26.8
통합보안시스템	12.1	16.2	19.2	5.3	2.4	24.0	32.0	27.4	38.1	-13.5	9.9	11.2	23.1
바이오인식솔루션	37.6	82.3	90.7	-30.5	46.0	39.3	-14.6	119.3	-37.4	-52.3	51.2	47.9	33.6
용역, 기타	-45.6	-9.5	15.9	44.1	28.7	48.8	72.8	11.9	20.7	-9.5	-8.0	2.4	29.9
해외	10.0	24.6	19.2	11.0	45.6	11.5	17.1	37.1	5.3	33.2	7.4	16.2	26.9
통합보안시스템	8.9	28.1	23.3	8.9	40.0	9.1	19.7	43.9	9.9	37.9	7.6	17.0	27.7
바이오인식솔루션	-3.9	20.8	10.0	14.6	137.2	-0.5	16.4	-20.7	-15.4	12.8	8.4	12.3	16.0
용역, 기타	138.5	2,712.5	-32.5	-65.1	-48.0	-192.9	-75.0	-509.0	-31.3	-33.0	-17.5	-3.3	129.5
매출총이익	7.2	31.3	25.4	19.5	54.7	15.5	17.6	34.1	6.8	25.5	6.5	21.3	28.8
GPM (% pts)	3.0	8.8	5.1	4.5	9.9	-0.1	-2.7	1.5	-1.2	1.2	0.4	3.7	1.0
영업이익	29.8	154.0	60.1	-1.4	156.3	12.5	13.8	50.5	-5.3	34.2	-6.7	39.8	40.6
OPM (% pts)	2.3	110.5	34.1	-13.7	82.1	-2.7	-5.9	13.9	-12.3	8.2	-11.9	22.2	10.8
지배주주순이익	61.3	67.3	-26.7	61.7	26.0	-91.6	160.9	-1.7	23.6	2,450.0	5.1	9.5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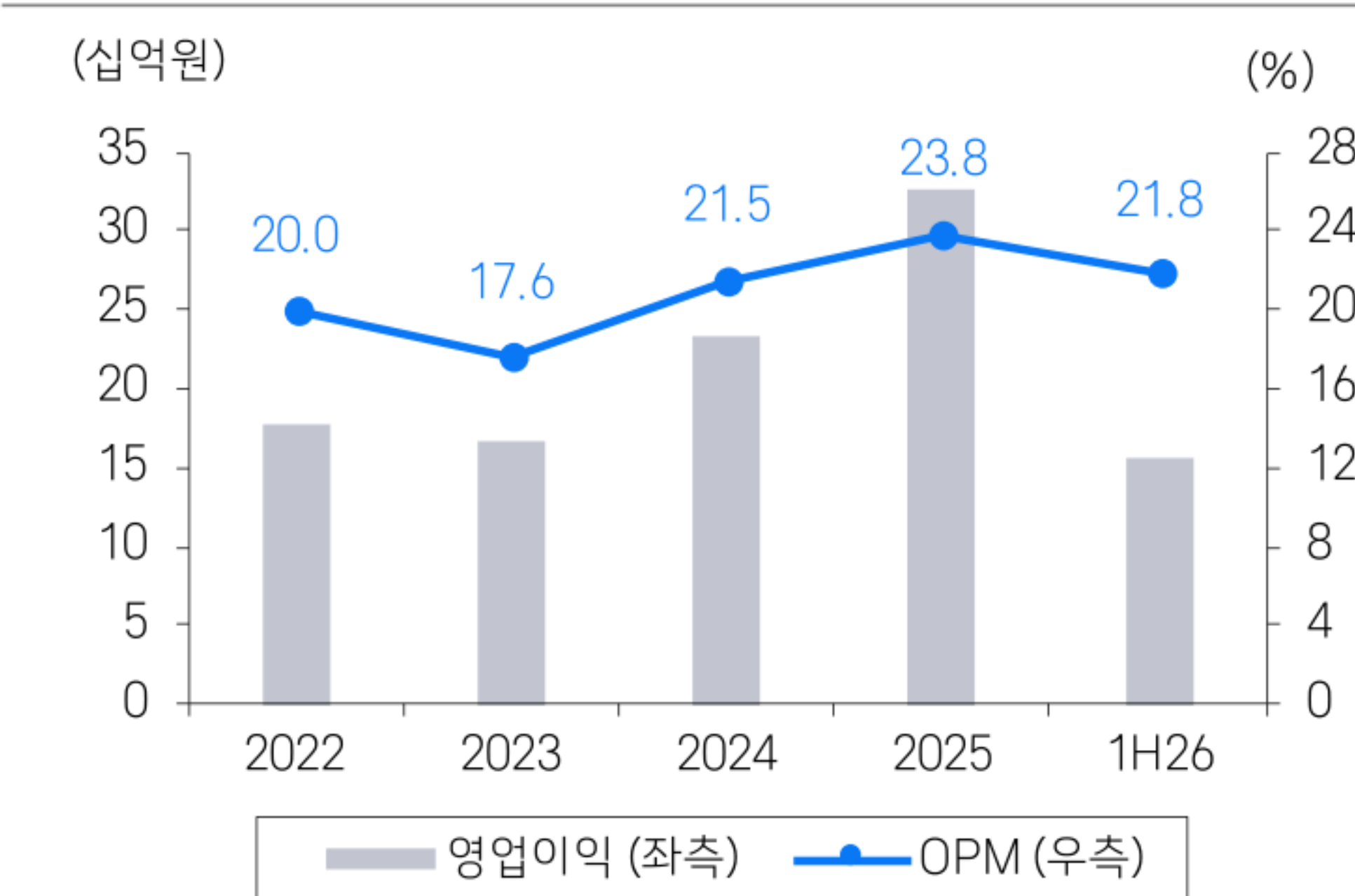
자료: 슈프리마, 삼성증권

매출액과 GPM 추이



자료: 슈프리마, 삼성증권

영업이익과 OPM 추이



자료: 슈프리마, 삼성증권

매출 구성

1H26 기준 연결 매출은 714.6억원인데, 이는 (1) 통합보안시스템 578.5억원 (전체 매출의 81.0%), (2) 바이오인식 솔루션 76.7억원 (10.7%), (3) 용역 등 기타매출 59.4억원 (8.3%)으로 구성된다.

(1) 통합보안시스템은 슈프리마 연결 매출액의 81%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부이다. 매출은 출입 통제·근태 관리용 하드웨어 단말기와 제어·관제 관련 소프트웨어 판매로 구성된다. 이 중 하드웨어 판매 매출 비중은 98%로 사실상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소프트웨어는 동사의 하이엔드 하드웨어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 락인을 강화하기 위한 번들 형태로 주로 공급되어 단독 매출 비중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동사는 독자적 바이오(생체)인식 알고리즘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출입통제 및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인식 기술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등으로 구분되는데, 동사는 이 중 지문 및 안면 인식 분야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주요 제품군으로는 지문인식 단말기 BioStation, 얼굴 인식 단말기 FaceStation, 건물 입구 출입 통제용 지문인식 단말기 BioEntry, 통합보안 플랫폼 BioStar 등이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부터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및 공공 시설까지 대응 가능한 폭넓은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바이오인식 기반 하드웨어 외에도 모바일 출입카드 및 RF(Radio Frequency) 기술 기반 제품을 함께 공급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제품군들은 바이오 인식 제품 대비 기술 진입 장벽이 낮아 단가가 낮아 매출 기여도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다만 보안 등급에 따라 건물 외곽은 모바일·RF를 적용하고, 핵심 구역은 바이오 인식을 적용하는 등 다중 보안 방식이 일반화됨에 따라 크로스셀링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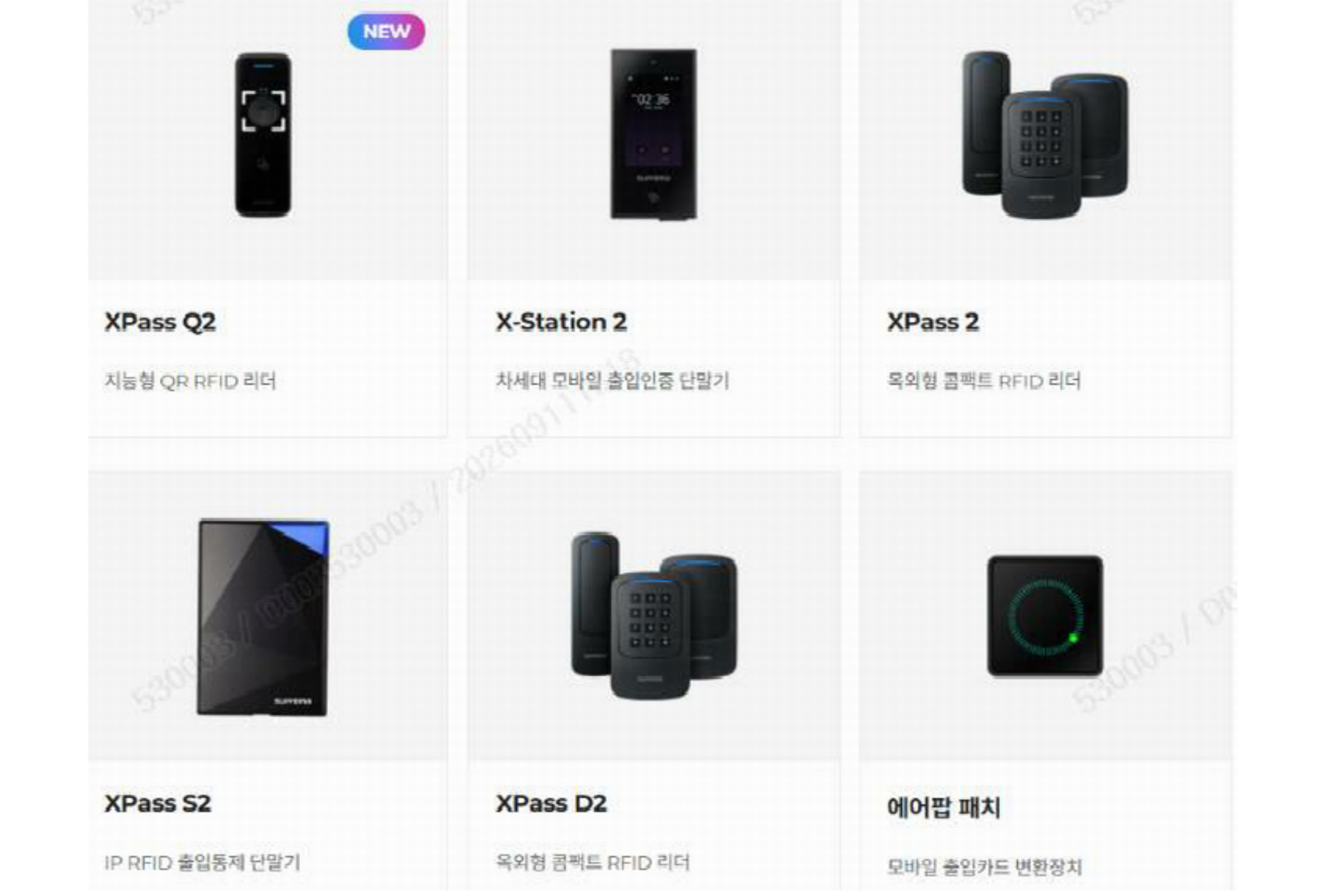
또한 슈프리마는 단순 출입통제 단말기 제조업체에서 온디바이스AI 기반 통합보안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며 구조적 외형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전반적인 ASP 상승이 유효했는데, 뒤에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플래그십 AI 안면인식 단말기 라인업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매출 성장을 크게 이끌었다. 2020년 453억원이었던 통합보안시스템 부문 매출액은 연평균 20% 이상의 가파른 증가세로 2025년에는 1,078억원을 기록했고, 사상 최초로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의 문턱을 넘었다. 이후 '26년 상반기 역시도 전년 대비 22.5%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슈프리마의 <바이오인식> 제품 라인업 예시



자료: 슈프리마, 삼성증권

슈프리마의 <RF/Mobile> 제품 라인업 예시



자료: 슈프리마, 삼성증권

(2) 바이오인식 솔루션은 스마트폰용 지문인식 알고리즘 ‘Biosign’과 지문인식 모듈 ‘SFM’, 인공지능 기반 얼굴인식 모듈 ‘Q-Face’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사업부문은 전체 매출액의 10.7%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통합보안시스템 대비 매출 규모는 크진 않지만 안정적 실적을 기록 중이다.

“Biosign” 지문인식 알고리즘은 세계 최소형 지문인식 센서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2019년 퀄컴과 파트너십 체결 이후 삼성 갤럭시 S10을 시작으로, 갤럭시 S시리즈 전체와 일부 A시리즈에 적용되고 있다. 이는 퀄컴이 삼성에 납품하는 초음파 지문인식 센서 ‘3D 소닉 센서’에 동사의 알고리즘 기술이 들어가는 구조이다. 당연히 올해 X월 출시한 갤럭시S26 시리즈에도 해당 알고리즘이 들어가며, 해당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동사의 바이오 인식 솔루션 매출액도 상승할 것이다. 경쟁사 중국 업체들 대비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단가가 높아 현재는 갤럭시 S시리즈 위주로 들어간다. 다만 향후 미·중 갈등이 해소되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퀄컴 센서 도입 수요가 나온다면 중국 제품으로도 진입을 기대할 만하다. 해당 알고리즘의 영업이익률은 약 80% 수준으로 파악되며, ‘24년 40% 단가 인상이 적용됐다.

SFM (Suprema Fingerprint Module)은 슈프리마의 임베디드 지문인식 모듈 제품군으로, 지문 센서, 프로세서, 알고리즘을 고객사에 하나의 모듈 형태로 제공한다. 고객사는 이를 활용해 출입통제기, 근태단말기, ATM, 도어락, 금고 등 다양한 바이오인식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할 수 있다. SFM은 고객사 적용 범위가 넓어 다양한 산업군으로 판매되며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Q-Face’라는 AI 기반 얼굴인식 모듈까지도 개발하는 등 기술 및 제품군을 더욱 넓히고 있다.

(3) 기타 매출은 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관련 기술 용역과, 클라우드 기반 SaaS 플랫폼 ‘클루(CLUe)’ 사용료, 모바일 크리덴셜 발급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매출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갤럭시S 시리즈 등에 적용되는 <Biosign> 기술



자료: 슈프리마, 삼성증권

슈프리마의 <SFM> 제품 라인업 예시



자료: 슈프리마, 삼성증권

지역별 매출액 및 비중

지역별 매출액 및 비중

매출액 (십억원)	2022	2023	2024	2025	1H25	1H26
국내	19.5	19.5	20.9	26.6	10.5	10.8
아시아	14.8	17.3	19.7	25.4	11.7	16.5
아메리카	23.4	22.5	27.2	33.3	15.4	19.2
유럽	21.2	21.7	23.7	28.0	13.8	14.0
중동/아프리카	10.6	13.6	16.7	24.0	10.0	11.0
합계	89.4	94.6	108.2	137.3	61.3	71.5
매출 비중 (%)						
국내	21.8	20.6	19.4	19.4	17.1	15.2
아시아	16.5	18.3	18.2	18.5	19.0	23.0
아메리카	26.2	23.8	25.1	24.3	25.2	26.9
유럽	23.7	22.9	21.9	20.4	22.4	19.5
중동/아프리카	11.9	14.4	15.4	17.5	16.3	15.3

자료: 슈프리마, 삼성증권

지역별로 살펴보면 1H26 기준 아메리카의 비중은 26.9%(192억원)으로 슈프리마의 매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화웨이, ZTE, 하이크비전, 다화 등 중국산 통신·보안 장비에 대한 수입 금지를 적용한 이후,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전방위적인 중국산 통신·감시장비 규제는 슈프리마 프리미엄 장비의 해외 수주 확대에 이어지는 핵심 반사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최대 영상감지 및 출입통제 기업 하이크비전의 연간 매출 성장률은 규제 이전 35% 수준에서 규제 적용 이후 -3~2%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는데, 동사는 '24년~25년 북미에서 연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26년 7월에는 신제품뿐 아니라 기존 모델 및 부품 까지도 수입을 금지하며 규제 강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미 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 증설에 따라 고등급 보안 수요 증가도 동사의 하이엔드 하드웨어 채택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22년 11.0%에 불과하던 매출 비중이 '25년에는 17.5%까지 성장하며 전사 외형 성장을 주도해왔다. 다만 1H26 기준으로 15.3%(110억원)으로 매출 비중이 하락했는데, 이는 올해 1분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격화로 주요 프로젝트 발주 및 납품 일정이 일부 지연된 영향이다. 다만 2분기 사우디(네옴 등) 및 두바이 대형 사이트 수주가 재개되며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 이에 상반기 합산으로도 전년 동기의 실적을 뛰어넘는 반등을 실현하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주요 관공서, 엔터프라이즈형 솔루션 납품이 본격화에 따라 연간 기준 매출 성장세 및 기여도는 재차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2026년 들어 가장 가파른 외형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아시아 지역인데, '25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은 18.5% 였으나 1H26 23.0%까지 상승했다. 특히 인도 모디 정부의 인프라 현대화 정책에 힘입어 인도 전역에서 신설 철도, 항만, 공항 등에 하이엔드 출입통제·생체인식 장비 도입이 표준화되며 인도향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시장 역시 도쿄 중심의 신축 오피스 빌딩 공급 확대 사이클과 맞물려 현지 대형 SI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한 점유율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어 아시아 지역의 구조적 성장세 역시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투자 포인트 1) – 고단가 AI 제품 비중 확대

출입보안 및 근태관리 시장 내 트렌드는 기존의 저가형·RF카드, 그리고 지문인식 중심에서 딥러닝 NPU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AI 안면 인식 솔루션으로 빠르게 재편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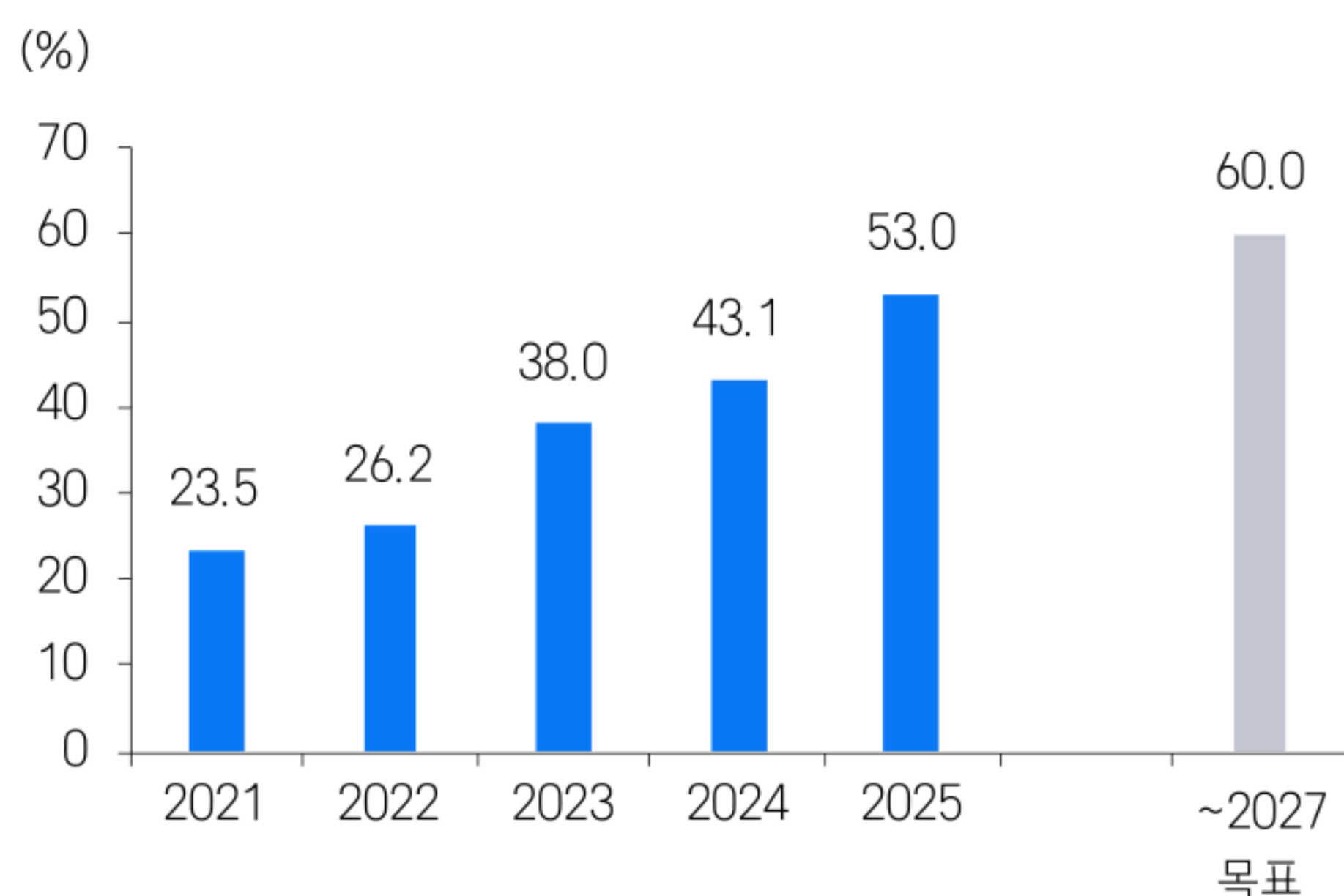
동사의 안면 인식 솔루션은 물리적 마모 및 위생 이슈가 없는 비접촉 방식의 편의성을 제공할뿐더러, AI 알고리즘의 고도화로 조도 변화나 마스크 착용, 각도 왜곡 등 비정형 환경에서도 오인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특히 적외선 센서와 비주얼 카메라를 결합한 라이브 얼굴 감지 기술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 3D 마스크 등을 활용한 위변조 시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필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강력한 가격 프리미엄으로 직결된다. 자체 개발(팹리스) 딥러닝 NPU 프로세서와 복합 센서, 그리고 동사의 독자적 알고리즘이 내장된 안면 인식 단말기는 단순 인증 위주의 기존 제품군 대비 월등히 높은 ASP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 동사의 안면 인식 기반 제품은 전통적인 RF 카드 방식 대비 약 4배 이상, 그리고 지문인식 단말기 대비 약 2배 이상 높게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안면 인식 기반 제품의 판매량 및 판매 비중이 상승한다면, 매출 상승률이 빠르게 우상향 가능한 구조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하이엔드 보안을 요구하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와 빅테크 향으로 고객사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건설 붐과 맞물려 물리 보안 수요도 대폭 확대되고 있는데, 데이터센터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보안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복제가 쉬운 RF카드나 접촉식 지문의 단일성 인증보다는 안면 인식을 활용한 고성능·다중 보안 단말기가 필수 표준 스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Equinix 등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글로벌 SNS 엔터프라이즈, ADNOC(UAE 국영석유회사), PIF(사우디 국부펀드) 등에서 동사의 하이엔드 제품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Equinix 위주로 납품하는 데이터센터향 매출은 25년 31억원이었는데, 이미 1H26에는 47억원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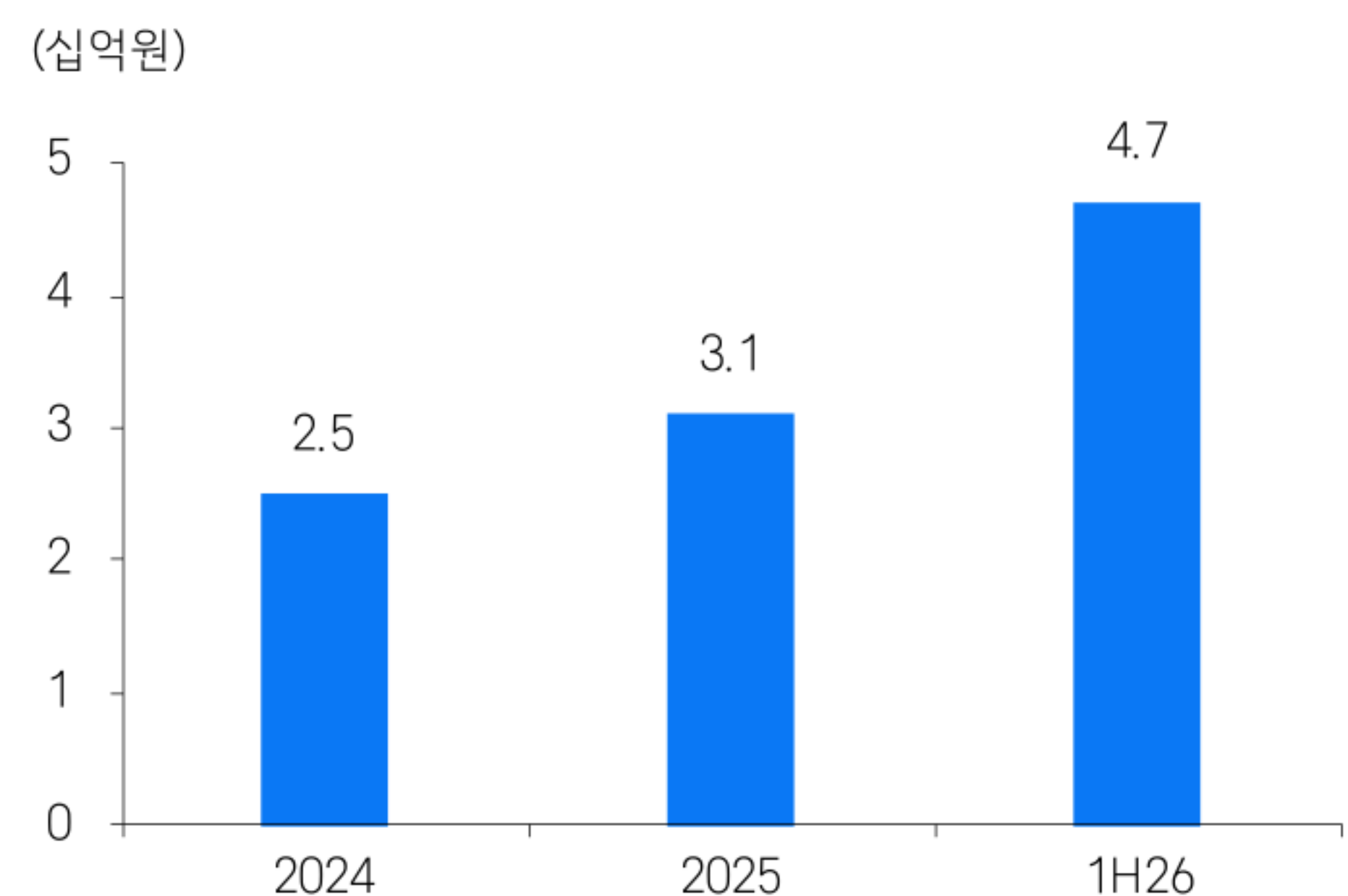
FaceStation F2, BioStation 3 등 고단가 AI 라인업의 글로벌 침투가 본격화되면서, 1H26 별도 기준 동사의 핵심 하드웨어(RF + 지문 + 안면) 매출 내 안면인식 비중은 50% 이상을 넘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아예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데이터센터나, 프론티어 마켓(중동·인도 등)에서의 새로운 고객들도 크게 증가했지만, 기존 타사의 구형 RF·지문인식 장치를 사용하던 고객들이 동사의 고성능 안면 인식 기기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높다. 또한 기존 슈프리마 고객들 역시도 교체 주기(약 5년)가 도래하면서 안면 인식 기기를 채택하고 있다. 신규/교체 고객 비중은 대략 5:5 수준이다. 이에 현재 판가(P)와 판매량(Q)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락인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AI 제품 매출 비중 및 목표



자료: 슈프리마, 삼성증권

데이터센터향 매출 추이



자료: 슈프리마, 삼성증권

투자 포인트 2) – 높은 현금 창출력, 주주 환원 본격화

동사는 IT 하드웨어 업종 내에서는 높은 현금 창출력, 재무 안정성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다. 최근 5년('21~25년) 평균 매출 성장률 13.6%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한 해외 수출 중심의 고마진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동기간 평균 21.1%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매년 창출되는 건조한 영업 현금흐름은 현금성 자산으로 고스란히 축적되고 있다. 1H26 기준 부채 비율은 9.5%인데, 이는 당사가 스크리닝한 코스닥 종목들(시총 3천억원~7천억원) 평균 94.2%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는 금융권 차입이 아닌 매입 채무, 미지급금 등 단순 영업성 부채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무차입 경영 기조를 지속 중이다.

그동안 동사는 단순 통제 단말기 제조 기업으로 인식되며 시장에서는 기업의 향후 성장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뛰어난 이익 창출력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은 거의 제로수준에 불과해 이는 PER 한 자릿수 대라는 밸류에이션 디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풍부한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고 있는데(1H26 연결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774억원, 단기 금융상품 305억원 등), 그동안은 높은 현금성 자산 및 낮은 부채 비율로 오히려 자기자본이 비대해져 ROE는 비교적 낮아 자산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이에 동사는 25년 6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며 체질 개선을 단행하며 저평가 탈출을 목표한다.

'25년 6월 발표한 제고 계획 (2025-27)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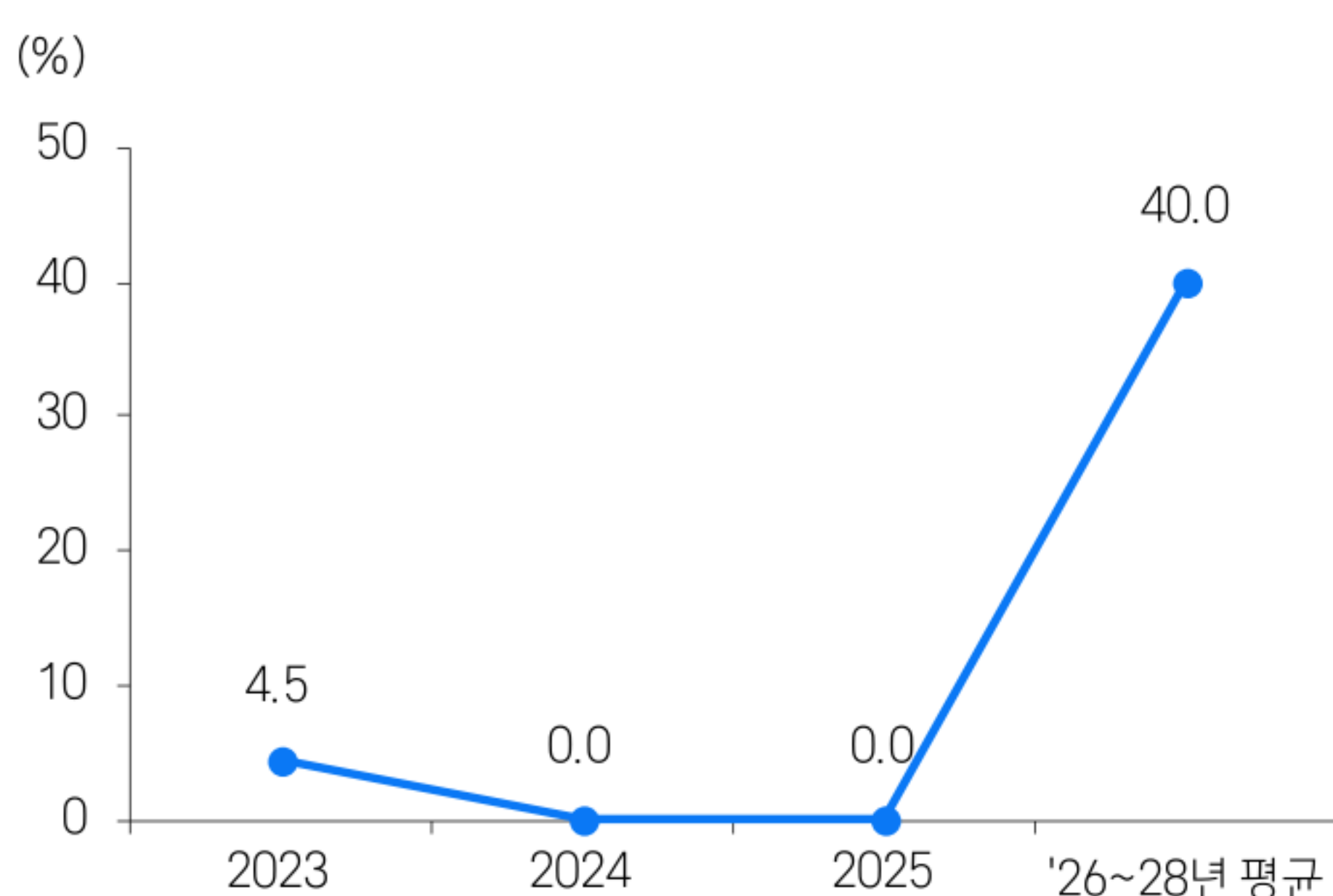
- 1) 수익성 강화 – ROE 18%, AI 제품 매출 비중 확대 (~60%),
- 2) 성장성 확대 – 매년 역대 최고 매출 달성, M&A or 자체개발을 통한 매출 확대
- 3) 소통 강화 – PER 15배, IR 활성화, 기관·외국인 소통 강화를 통한 장기 보유 주주 증대

또한 26년 4월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현황을 발표하면서, 주주 환원 목표도 추가로 설정했다.

- 1) 주당 연간 최소 배당금 (2026-28): 연간 최소 400원 이상, 반기 배당
- 2) 연결기준 주주 환원율 40% 이상: 배당 + 자사주 매입/소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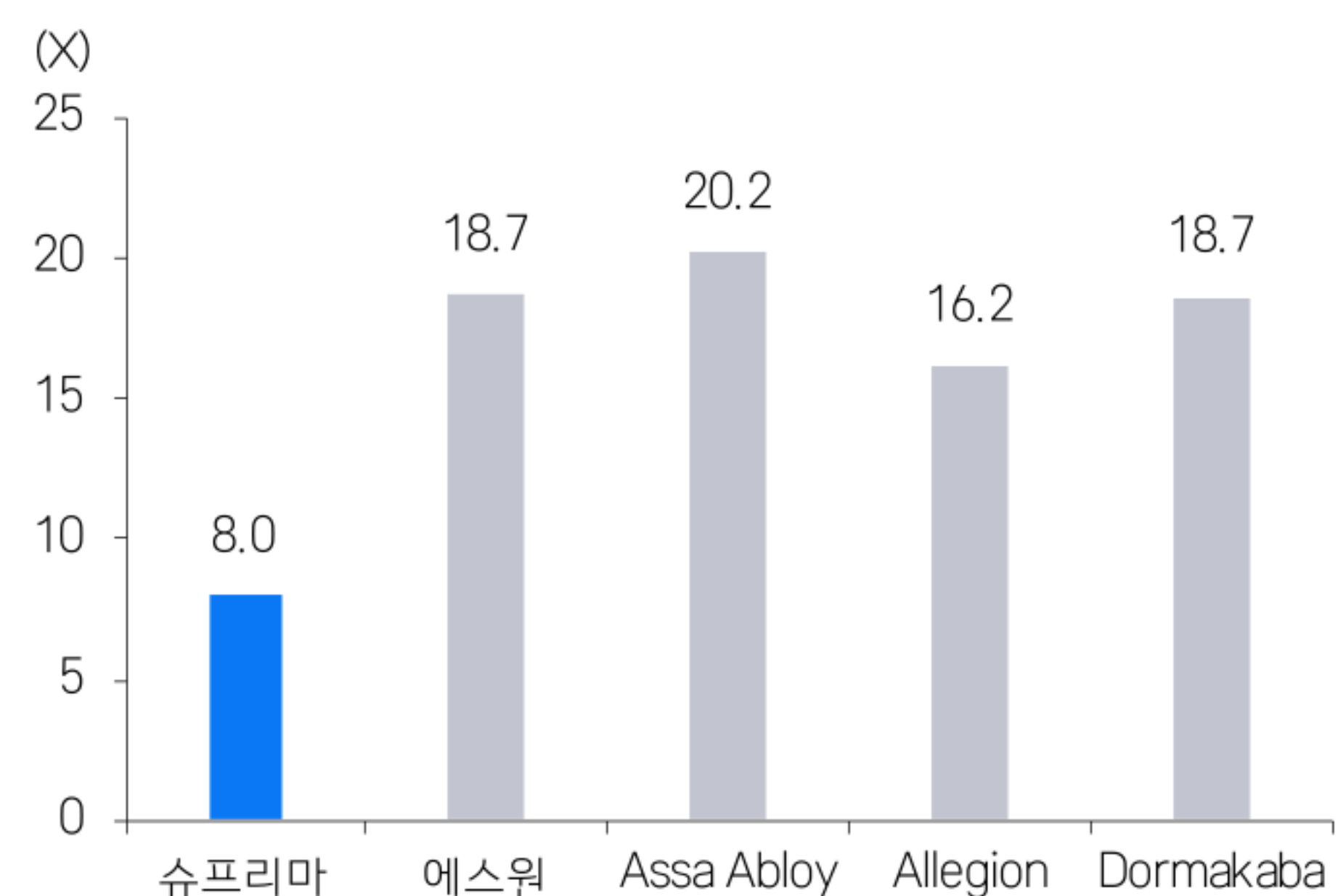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약 120억원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주당 200원(약 13.7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독보적인 수익성에 따른 현금흐름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이라는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가는 최근 환율 영향 및 중동 불확실성으로 3분기에 조정이 있었지만, 연초 대비로는 약 39% 상승했다. 그럼에도 현재 주가에서 컨센서스(Bloomberg)기준 12MF PER은 8.0배로, 출입 통제 분야 글로벌 피어 대비 낮은 편이다.

총 주주 환원율 목표 40% 이상



자료: 슈프리마, 삼성증권

글로벌 주요 출입통제업체 밸류에이션 비교 (12MF P/E)



참고: 에스원은 통합보안이지만 국내 경쟁사 부재로 기입 /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투자 포인트 3) – 토탈 물리보안 기업으로 전환 목표

슈프리마는 기존 바이오인식 출입통제 하드웨어 단말기 공급자에서, AI 비전 카메라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영상관제가 일체화된 토탈 피지컬(물리)보안 솔루션 공급자로 진화하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피지컬 보안 관제 시장에서는 출입통제 시스템과, CCTV 영상감시 시스템이 상호 분리되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다. 동사는 이에 온디바이스 AI 카메라인 바이오닉스(VIOnyx)를 출시했는데, 이는 360도 커버가 가능하고 최대 10만개의 얼굴 등록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CCTV는 영상 내 인물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식별하는 신원 확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나, 바이오닉스는 동사의 플래그십 단말인 BioStation 3급의 알고리즘 엔진이 구현되어 높은 인식도를 구현한다. 또한 동사의 관제 소프트웨어인 바 BioStarX VMS를 결합하여 구성원이 게이트를 통과한 시점부터 실시간 동선을 사용자 ID와 연동하는 Re-ID(재식별) 기능을 수행이 가능하다.

바이오닉스 카메라는 올해 3분기 공식 론칭되어, 현재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공급 및 실증 적용되고 있다. 실증 레퍼런스와 데이터를 축적한 뒤 내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및 정식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동사는 바이오닉스 카메라 판매로 더욱 큰 폭의 외형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건물 구축 시 기존 출입용 하드웨어는 건물 출입구, 부서별 출입문에 한정되지만, 구역 감시를 위한 AI 카메라는 공간별로 최소 3-4개씩 다량 배치되기 때문이다. 기존 바이오인식 하드웨어 납품에 더해, 대당 약 100만원의 카메라와 VMS가 함께 설치될 경우 프로젝트당 매출 규모는 훨씬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슈프리마는 현대건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과 3년간의 공동 R&D를 진행하며 지능형 로봇 및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위한 피지컬 보안 관제 체계를 실증해왔다. 현재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디에이치 주거단지와 더현대 등에서 로봇 배달·순찰·방범 관련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물론 현재는 실증 단계 수준이지만, 향후 4족 보행 로봇이나 차세대 휴머노이드들이 제조 팹과 데이터센터 등 주요 시설이나 프리미엄 주거 지역에 투입이 된다면, 슈프리마의 솔루션이 표준 아키텍처로 채택될 수 있는 결정적 레퍼런스를 선점했음을 시사한다.

바이오닉스 카메라 라인업

	
Bullet Camera	Dome Camera
• 1/2.8" 2 메가픽셀 CMOS • 4.3배 전동 가변초점 렌즈 • 최저조도 0Lux 야간가시거리 50m	• 1/2.8" 2 메가픽셀 CMOS • 4.3배 전동 가변초점 렌즈 • 최저조도 0Lux 야간가시거리 30m

자료: 슈프리마, 삼성증권

슈프리마 – 현대건설 – 현대차·기아 MOU 체결



자료: 슈프리마, 삼성증권

리스크 및 우려 요인

1) 뚜렷한 계절성, 단기 마진 변동성

동사의 하드웨어 제품 판매는 공공 조달 예산과 글로벌 기업들의 연간 CAPEX 집행 일정과 직접적으로 맞물려있어 4분기에 연간 실적이 집중되는 계절성을 보인다. 특히 정부 기관, 지방 자치단체, 글로벌 대기업들은 당해 연도에 배정된 보안 및 시설 인프라 시설을 연말인 4분기에 집중적으로 소진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연도별 4분기 매출 비중은 '24년 31.9%, '25년 33.2%로 연간 매출의 1/3 수준에 육박한다. 다만 3분기 매출은 1분기보다는 높지만 2분기보다는 소폭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는데, 주요 타겟 시장인 서구권의 7~8월 하계 휴가철 영향으로 프로젝트 집행 및 납품 일정이 연말로 지연되는 징검다리 분기 특성에 기인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글로벌 전반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슈프리마의 AI 제품에는 NPU,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어 이와 관련해 단기적 원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하이엔드 시장 내 높은 브랜드 입지를 바탕으로 하드웨어 최적화 및 가격 전가를 진행 중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마진 압박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2) 지역별 매크로 변수 및 지정학 리스크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구조상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중동 지역은 스마트시티,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등으로 하이엔드 제품 수요가 견조했으나, 정세 불안에 따른 발주 지연 리스크가 상존한다. 실제로 '25년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중동향 매출은, 올해 1분기 특히 일시 위축된 바 있었다. 다만 이란 등 직접 분쟁 지역에는 침투율이 낮아 전쟁 영향은 다소 덜한 편이다.

아울러 고금리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민간 CAPEX 투자 지연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미국 FCC 규제로 중국산 장비 배제 흐름과 글로벌 AI 관련 인프라 건설 속도를 고려하면 이는 제한적일 것이다.

(3) 환율 변동성 및 금융손익 리스크

동사의 '26년 상반기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은 85.1%에 달해 원/달러 환율 변동에 대한 실적 민감도가 매우 높을 수 있다. 주요 수출 계약이 달러 기반으로 체결돼 원화 강세 시 매출 타격이 있지만, 원재료 수입 비중은 크지 않아 마진 방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상반기 기준 외화금융자산(USD)은 원화 환산 기준 1,130억원에 달하는데, 공시에 따르면 환율 변동 10%당 107.8억원의 당기순익 증가/감소 효과가 있다. 이에 3분기 환율 하락에 따른 매출 및 당기순이익의 단기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12월 31일 기준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73	89	95	108	137
매출원가	29	35	37	38	47
매출총이익	43	55	58	70	91
(매출총이익률, %)	59.4	61.0	61.4	65.1	66.1
판매 및 일반관리비	27	37	41	47	58
영업이익	16	18	17	23	33
(영업이익률, %)	22.4	20.0	17.6	21.5	23.8
영업외손익	7	2	8	15	4
금융수익	8	6	9	16	10
금융비용	1	4	1	2	6
지분법손익	0	0	0	0	0
기타	0	-0	0	1	-0
세전이익	24	19	25	38	37
법인세	1	2	2	5	4
(법인세율, %)	3.7	8.2	6.8	14.4	11.6
계속사업이익	23	18	23	32	32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순이익	23	18	23	32	32
(순이익률, %)	31.2	20.0	24.3	30.0	23.6
지배주주순이익	23	18	23	32	32
비지배주주순이익	0	0	-0	0	0
EBITDA	19	21	20	27	37
(EBITDA 이익률, %)	26.4	23.5	21.3	24.9	27.0
EPS (지배주주)	3,149	2,484	3,191	4,516	4,474
EPS (연결기준)	3,149	2,484	3,191	4,516	4,474
수정 EPS (원)*	3,149	2,484	3,191	4,516	4,474

현금흐름표

12월 31일 기준	2021	2022	2023	2024	2025
영업활동에서의 현금흐름	18	19	23	34	37
당기순이익	23	18	23	32	32
현금유출입이없는 비용 및 수익	-1	4	-1	-2	5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1	1	2	2	2
무형자산 상각비	2	2	2	2	2
기타	-4	1	-5	-6	0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	-6	-7	-1	2	1
투자활동에서의 현금흐름	-13	-15	-14	-31	-33
유형자산 증감	-2	-2	-1	-4	-6
장단기금융자산의 증감	6	-20	-1	6	-4
기타	-17	6	-12	-33	-23
재무활동에서의 현금흐름	-3	-3	-1	-0	1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0	1	1
자본금의 증가(감소)	-0	-0	0	0	3
배당금	0	0	0	0	0
기타	-3	-3	-1	-2	-2
현금증감	1	1	8	4	6
기초현금	32	34	34	42	46
기말현금	34	34	42	46	51
Gross cash flow	22	22	22	30	37
Free cash flow	15	17	22	30	32

참고: * 일회성 수익(비용) 제외
** 완전 희석, 일회성 수익(비용) 제외
*** P/E, P/B는 지배주주 기준

자료: 슈프리마, 삼성증권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기준	2021	2022	2023	2024	2025
유동자산	83	117	126	113	177
현금 및 현금등가물	34	34	42	46	51
매출채권	12	14	18	19	23
재고자산	15	21	20	21	21
기타	22	47	47	27	82
비유동자산	93	77	92	147	122
투자자산	71	56	71	124	93
유형자산	10	11	10	13	17
무형자산	9	8	9	7	9
기타	2	3	2	3	3
자산총계	176	194	218	260	300
유동부채	9	12	14	22	27
매입채무	4	3	5	7	8
단기차입금	0	0	0	0	0
기타 유동부채	5	8	10	15	19
비유동부채	1	0	0	1	2
사채 및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 비유동부채	1	0	0	1	2
부채총계	10	12	14	23	29
지배주주지분	166	182	204	237	271
자본금	4	4	4	4	4
자본잉여금	76	76	76	76	79
이익잉여금	89	107	130	163	195
기타	-3	-5	-6	-6	-6
비지배주주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166	182	204	237	271
순부채	-42	-62	-71	-65	-75

재무비율 및 주당지표

12월 31일 기준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감률 (%)					
매출액	25.6	23.2	5.9	14.4	26.9
영업이익	52.6	10.0	-6.7	39.8	40.6
순이익	140.4	-21.1	28.5	41.5	-0.3
수정 EPS**	140.4	-21.1	28.5	41.5	-0.9
주당지표					
EPS (지배주주)	3,149	2,484	3,191	4,516	4,474
EPS (연결기준)	3,149	2,484	3,191	4,516	4,474
수정 EPS**	3,149	2,484	3,191	4,516	4,474
BPS	23,578	26,171	29,583	34,301	38,917
DPS (보통주)	0	0	0	0	0
Valuations (배)					
P/E***	7.9	8.7	6.5	5.4	8.7
P/B***	1.1	0.8	0.7	0.7	1.0
EV/EBITDA	7.2	4.4	3.9	4.1	5.6
비율					
ROE (%)	14.5	10.3	11.9	14.7	12.8
ROA (%)	13.7	9.7	11.1	13.6	11.6
ROIC (%)	42.9	38.4	34.0	43.7	59.5
배당성향 (%)	0.0	0.0	0.0	0.0	0.0
배당수익률 (보통주, %)	0.0	0.0	0.0	0.0	0.0
순부채비율 (%)	-25.1	-34.2	-34.7	-27.5	-27.8
이자보상배율 (배)	417.5	2,189.7	1,399.5	3,633.8	256.6